

도이치모터스 수사 인원 충원... 김건희 옥죄는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선 대검찰청이 앞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를 서울고검에 파견해 수사 인원을 충원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대검찰청이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 형사부는 최행관 고검 검사와 함께 3명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전 회장이 지인인 김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했 것으로 본 것이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본인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

서울 고검, 예전 수사검사 추가 파견... 3인 체제로 보강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고발인 최강욱이 항고 주가조작 관련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모두 유죄 확정



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권오수가 김건희 등 계좌주들에게 주식을 관리해 이익을 내 주었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김건희는 이종호(블랙필인베스트 대표)나 김모 씨에게 직접 혐의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전주(錢主) 손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앞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를 파견해 수사 인원을 충원했다. 연합뉴스

공정위 조사 대상 구독서비스 자료:공정위

구분	대상 브랜드(총 37개)
영상·음원 (8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제니뮤직
전자책 (4개)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생성형 AI(2개)	chat GPT, Gemini
클라우드·문서 (6개)	네이버 MYBOX, Microsoft, Google 드라이브, iCloud, Microsoft OneDrive, Adobe Acrobat, Office 365
캐릭터드카 (8개)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한국지엠, 현대차 동차, BMW, KG모빌리티
멤버십 서비스 (9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럽, 요기페이스X, 캘리멤버스, 쿠팡와우,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공정위, 구독서비스 첫 실태조사

넷플·챗GPT 등 37개 대상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디지털 콘텐츠(영상·음원·전자책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문서, 캐릭터드카 등, 멤버십 서비스 구독 분야의 주요 서비스 37개에 대해 서면 실태 조사를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넷플릭스·챗GPT·쿠팡와우·유튜브 프리미엄·네이버플러스 멤버십·배민클럽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가 파악한 구독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은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제공 안 됨 △추가 요금 지불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청약철회 방해 등이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할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인공지능(AI) 추천 등 디지털 콘

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 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공정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적극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7조 제1항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 연구(Market Study)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구글 '인앱결제 방식 강제' 독점적 지위 제동건다



최수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자사 결제 강요·외부 결제 차별 금지 명문화
콘텐츠 심사 지연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현재 수준보다 더 강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 혹은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21년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등은 해당 법률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사실상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자사 결제 수단 외의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

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불합리·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한 이유로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한 명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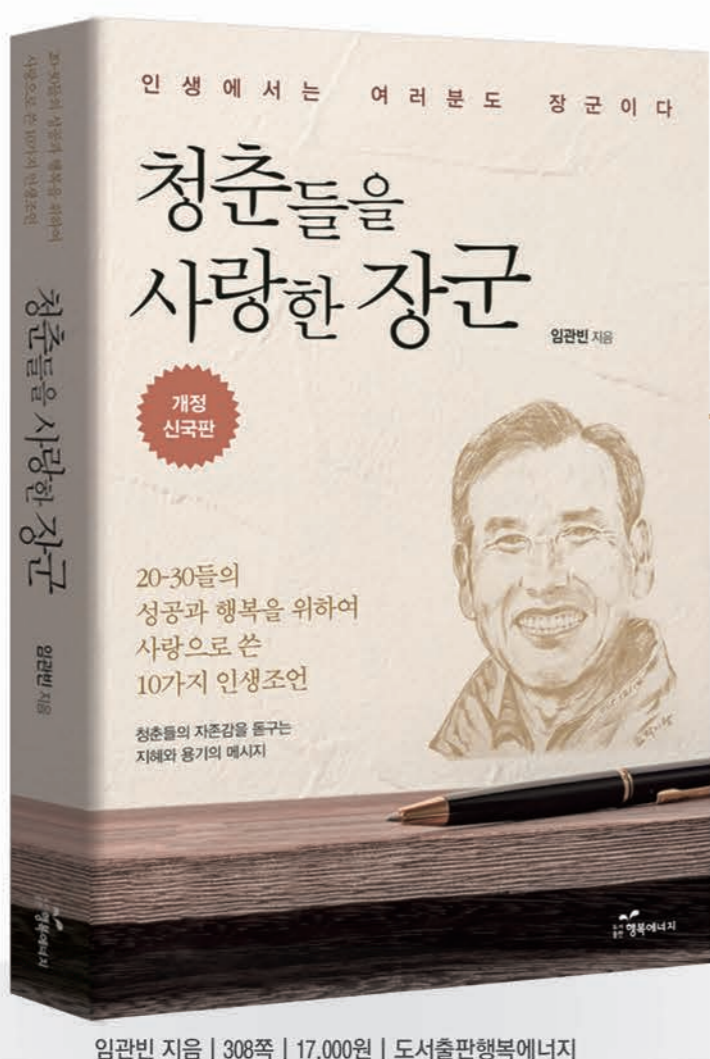
아울러 대형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위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적절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일방적으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콘텐츠 제공자들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의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보통신기술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현재 수준보다 더 강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